

Ethylene, 드디어 500달러 돌파

FOB Korea 495-505달러 형성 ... 공급부족 및 PE 강세로 가격상승

Ethylene 가격은 12월5일 FOB Korea 톤당 495-505달러로 25달러 급등했다.
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PE 강세 및 공급부족으로 톤당 15-25달러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수출에 나선 무역상들은 물량폭주로 인해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주말에 호남석유화학은 12월 하순 거래물량 2300톤을 FOB Korea 톤당 480달러에 판매했다. 그러나 목요일에는 1월 초순 거래물량 2000-3000톤을 500달러에 판매하려고 했으며 1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 공급가격으로 최고 515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주초 SK는 1월 중순 거래물량 2000톤을 공식 Spot 가격에 판매했으며 타이완에 대한 12월 및 1월 거래가격은 CFR 톤당 각각 500달러, 520-530달러를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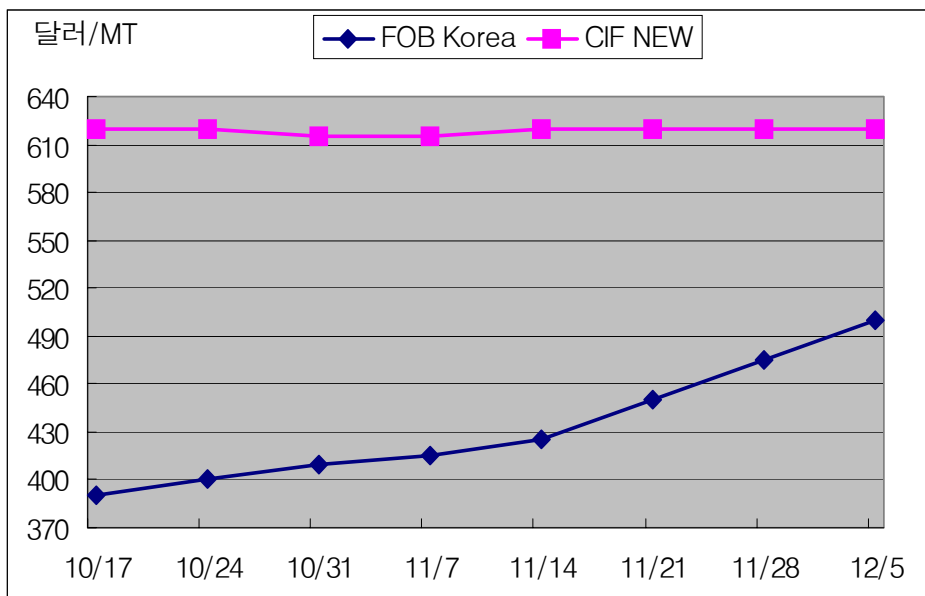
동남아 지역은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동북아 지역보다 60달러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.

인도네시아 공급가격은 CFR 톤당 580-590달러, 구매의사가 가격은 560달러대를 나타냈으며 타이완 12월 계약가격은 수요기업의 유도제품에 따라 Pipeline 톤당 510-580달러대를 형성했다.

금요일에는 나프타(Naphtha) 코스트가 C&F Japan 톤당 300달러로 이에 따른 Conversion 코스트가 135달러에 달해 에틸렌 마진은 65달러를 기록했다.

HDPE Film 및 LLDPE 시장은 CFR China 톤당 각각 735달러, 715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12월5일 CIF NWE 톤당 610-630달러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4/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512유로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09>